# 광주 학교들 일상으로 돌아간다

## 내달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학사 운영 정상화
## 동아리·체험학습·봉사도 가능…운동장 단계적 개방

정부 방역체계가 대폭 완화되면서 5월부터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서도 일상 회복이 본격 추진된다.

코로나19로 닫혔던 학교 운동장, 교내 실내 체육시설도 정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5월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방역 목적으로 운영하던 학사 체계를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 전면 등교를 통해 학사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교육정상화 사전 단계로 오는 30일까지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학습 활동 제한도 풀린다. 교과 및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봉사·진로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이 모두 정상 운영된다.

체육관, 특별교실 등을 활용한 이동 수업이 교과별 계획에 따라 자율 운영되고, 방역을 위한 원격수업은 종료된다.

방역체계는 신규 변이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 개인 방역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설치 등은 유지하되, 세부 운영기준은 학교 실정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학급 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학생이 아닌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로 접촉자를 관리한다. 선제검사는 4월까지 주 1회 실시하고, 5월부터는 종료한다.

시민들이 이용했던 학교시설도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학교 운동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발표 후 학교별로 개방하고, 실내 체육시설 또한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화 조치도 시행한다.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460억원을 투자해 52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회복지원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광주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과 교육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기버스 타고 무등산 탐방하세요

## 원효사~담양 메타세쿼이아 등 생태탐방원 무료 이용 가능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무공해 전기버스를 타고 무등산 생태탐방원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생태탐방원을 비롯해 덕유산 등 국립공원 4곳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 전기버스 총 6대를 도입, 2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등산 생태탐방원에는 지난해 연말 50인승 전기버스 1대가 도입됐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단체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시범운행만 진행됐다.

전기버스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다.

전기버스는 원효사→장불재→담양 메타세쿼이아 길→광주 북구 생태호수 정자탐방→북구 평촌 명품마을 농촌 체험 등의 코스로 운영된다.

'친환경 전기버스 랄랄라'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전기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도 전기버스를 활용해 무등산 생태탐방원 일대를 돌아 볼 수 있다.

전기버스는 무등산 생태탐방원 주차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이번에 투입한 전기버스가 활성화되면 추가로 15인승 미니 전기버스 도입도 고려할 예정이다.

무등산 생태탐방원 관계자는 "전기버스는 내연기관 버스와 비교하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공원내 탄소 배출량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덕유산·내장산·설악산 생태탐방원과 새만금환경생태단지에서도 전기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박승희 열사를 기리며

## 30일 전남대서 다큐 시사회 등
## 31주기 추모 행사 다채

1991년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전남대 학생 박승희 열사 31주기를 맞아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열린다.

25일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에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추모 다큐멘터리 시사회와 박승희평전 북토크콘서트를 끝으로 31주기 추모주간이 마무리 된다.

30주기를 맞아 진행된 '박승희평전', '추모 다큐멘터리'가 완성돼 시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추모 다큐멘터리에는 박승희 열사의 고교 은사와 친구, 대학 선후배는 물론 분신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긴 학생,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열사를 치료했던 주치의와 간호사들 그리고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추모사업에 함께했던 후배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박승희평전은 군부독재 정권의 공안 탄압에 맞서 분신 항거한 후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이 때로는 열사의 목소리를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담하게 서술돼 있다는 게 사업회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박승희 열사의 모교인 정명여고에서는 열사 부모와 은사, 친구 등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박승희 열사는 전남대 2학년 재학 중이던 1991년 4월 29일 전남대 5·18광장에서 열린 명지대 강경대 학생 사망 규탄 집회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를 외치며 분신한 뒤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故 한승헌 변호사 5·18묘지에 영면** 인권변호사 故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영정이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군사 정권 당시 동백림간첩단, 통일혁명당, 민청학련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코로나 증상 유사 '리노바이러스' 주의보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 "콧물·타액 등으로 전파
## 두통·인후통·기침 등 증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5일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환절기 질환인 리노바이러스(Rhinovirus)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협력 병의원에 내원한 호흡기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사업'을 진행 중인데, 감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리노바이러스 검출률이 4월 2주차 21.7% (23건 중 5건), 3주차 32.3% (31건 중 10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1월에는 6.9%, 2월 5.2%, 3월 5.0% 등의 평균 검출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리노바이러스는 기온차가 큰 환절기인 봄·가을 시즌 체온조절이 불규칙하고 면역력이 저하될 때 주로 유행한다. 주로 콧물이나 타액 등에 의해 전파되고 두통,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 감염과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리노바이러스는 특히 형태학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르게 피막(껍질같이 얇은 막)이 없고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방역이 준수되더라도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

김선희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장은 "거리두기 방역수칙 전면해제 등으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위생수칙을 소홀히 하면 리노바이러스가 확산할 수도 있다"면서 "시민 모두 건강한 식이와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양궁월드컵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 광주경찰청, 내일 국제양궁장 일원

광주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2022 광주 현대 양궁월드컵'을 앞두고 27일 대테러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 국제양궁장 일원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폭발물 테러와 드론 테러 등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된다.

경기 시작 전 관중석에서 발견된 미상의 가방에 폭발물이 담겨있다는 설정과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드론이 출현해 경기장에 폭발물을 투척하거나 화생방 공격을 한다는 시나리오다.

훈련에는 광주경찰청, 남부경찰서, 경찰특공대, 3기동대(대테러특화부대)가 참여한다.

광주시 양궁대회TF 및 시체육회, 119특수구조단, 남부소방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육군 제503보병여단, 대테러합동조사팀(국정원·광주청·안보지원사·6탄약창·환경청), (주)드론과학스타교육원 등 10개 기관·단체도 참여한다.

양궁 월드컵은 매년 5차례 열리는 국제 양궁대회로 하계올림픽,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함께 양궁계 3대 대회로 꼽힌다. 5월 개최되는 광주 현대 양궁월드컵은 올해 두번째 대회로 27개국에서 360여명이 참가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학교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공고 제2022-20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계획
1) 신청 대상: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협업위원회
2) 지정 변경: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 특화지역 지정 변경 절차는 지방대육성법 제24조에 따라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준용함**
**(다만,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참조)**
3) 신청 기간: **2022. 2. 16.(수). ~ 5. 27.(금)**
4) 변경 내용
-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특례의 적용 대학 확대
⇒ 특례의 적용범위가 적용대학 소속 교원, 학생으로 제한되어 적용 대상이 아닌 대학의 소속 교원, 학생은 특례적용을 받지 못함

| 규제특례명 | 적용대학 |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 전남대, 목포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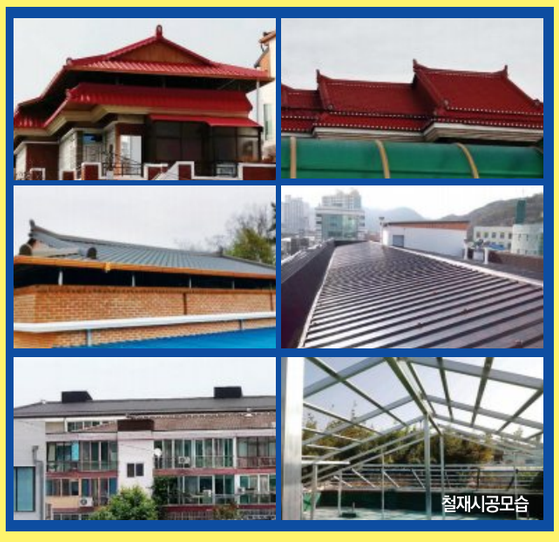
2.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
◦ 제출기간: **2022. 04. 18. ~ 05. 18.(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제출서 작성 후 서면 제출
◦ 제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미래교육관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
- E-mail: love56377@jnu.ac.kr
◦ 관련문의: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062-530-4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